부동산 투자이민제 10년… "있으나마나"

올 1분기 실적 2건… 사드 영향에 2017년부터 내리막
당초 취지 잃고 영주권만 챙기는 '먹튀' 논란 지속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누계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외국인 휴양체류시설(콘도) 분양 규모는 2건(15억1000만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제주를 포함한 인천과 강원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0년간 제주에서 이뤄진 외국인 휴양체류시설 분양 현황은 지난 3월 기준 1961건에 금액은 1조4637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분양 실적은 ▷2010년 158건(976억) ▷2011년 65건(544억) ▷2012년 121건(733억) ▷2013년 667건(4531억) ▷2014년 508건(3472억) ▷2015년 111건(1013억) ▷2016년 220건(1493억) ▷2017년 37건(926억) ▷2018년 30건(620억) ▷2019년 42건(310억)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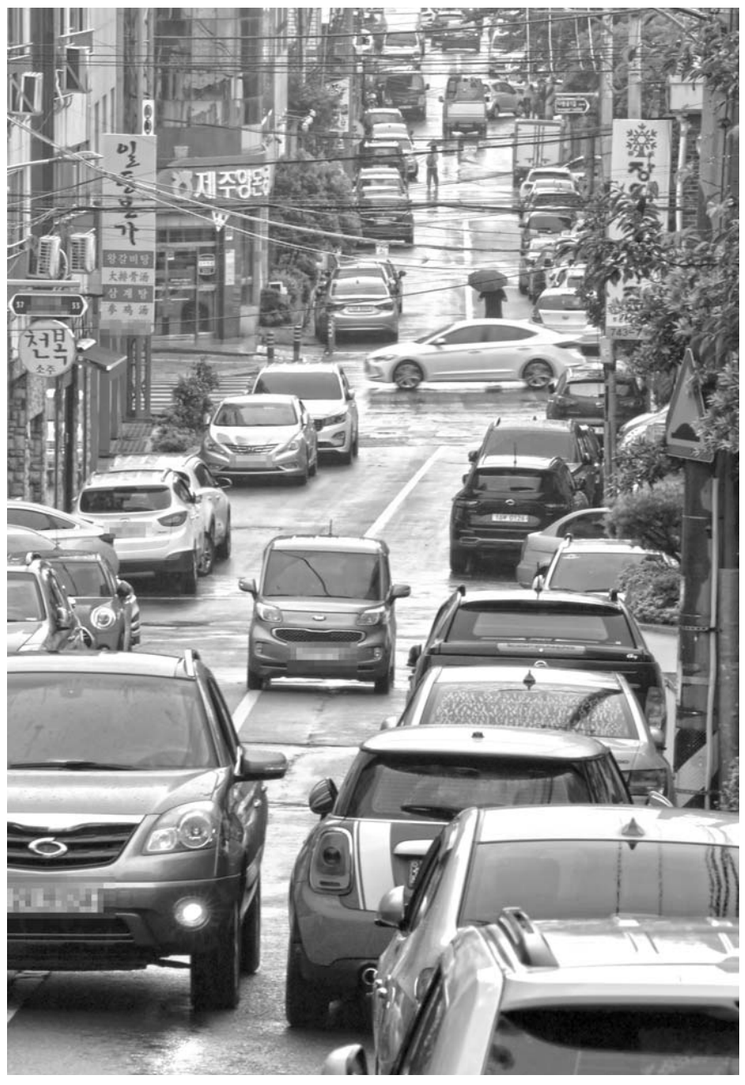
2013~2014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7년 사드 사태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중국정부의 보복 조치와 국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6년 이후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에 따른 거주비자 발급건은 총 2221건이며 이 가운데 영주권 발급을 받은 경우는 2017년 57명을 시작으로 2018년 225명, 2019년 538명, 2020년 3월 현재 57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처럼 투자이민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반면 영주권을 획득하고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일명 '먹튀'를 하는 사례는 많아지면서 제도 시행의 본질을 잃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거주비자 발급 1167건 가운데 중국이 1132건(97.0%)으로 절대적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아슬아슬한 골목길 운전 7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골목길 양옆 가장자리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추경예산 늑장에 임시회 연기될 듯

도, 의안 제출 기한 넘겨
오늘에야 2회 추경 제출
도의회 "검토 시간 부족"
9일 운영위서 일정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주도의회 제출이 늦어지면서 도의회가 7월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제2회 추경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당초 오는 13일 예정돼 있던 제385회 임시회 개회일이 16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도는 지난 3일까지였던 의안 제출 기한을 넘겨 8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의회의 사전 검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의사 일정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는 9일 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제385회 임시회 개회일을 오는 13일에서 16일로 연기하는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임시회 의사일정은 당초 오는 13일~23일에서 16일~28일로 변경된다.

한편 지난 6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주도본청 1국 1과 축소 등 새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한시적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근거를 담은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악취 방제 조례안'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 등 35건의 안건이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새로워진 행안위, 제주 현안 처리는…

여야 구성 완료·본격 활동
통합당 의원 배정 달라져

제주4·3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현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 배정이 완료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6일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를 비롯한 17개 상임위와 1개 특별위원회의 의원 배정을 완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도 위원 선임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행안위 간사에 재선 박완수(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을 선임했고, 4선 이명수(충남 아산시갑)·권영세(서울 용산구), 초선 박수영(부산 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김용판(대구 달서병),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을 배정했다.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겪었던 20대 국회에서 행안위에 몸담았던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 21대 국회에 재입성한 의원들은 모두 행안위에 배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미래통합당 행안위 간사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야당의 중요 협상 파트너였던 이채익 의원은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행안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선출됐고, 민주당 행안위 간사에는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선임됐다. 행안위는 조만간 법안소위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이 금연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서귀포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감면 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 교육 이수자는 과태료의 50%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금연 교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 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등을 이수하면 된다.

단,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기존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 희망자는 감면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뱃불만 붙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전자 담배, 씹는 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포함한다. 문의 760-6043. 김도영기자

당구장·헬스장 등 이용료 10% 할인

도, 민간시설 대상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을 유보했던 올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체육회에 가맹한 민간체육시설업종에서 제주카드(신용, 체크)나 농협카드(NH 신용,체크)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까지 월단위 지원 상한선이 1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 미집행분을 활용해 하반기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상한선을 2만원으로 확대했다. 카드사별로 각각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1인당 최대 월 4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카드사 가맹점 매출액 산출 자료에 따르면 1억7000만원의 예산 지원으로 가맹점 합계 37억9000만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이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용료 할인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그 밖의 자율업종 중에서 도체육회가 선정한 11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은 국학기공, 당구장, 댄스스포츠, 볼링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종합스포츠, 체육도장, 축구, 탁구장, 헬스클럽 등이다.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도체육회(문의전화 717-7145)에 제출하면, 도체육회에서 현장 확인 후 은행 통보로 확정된다.

한편 도는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이번 시책 시행에 앞서 업체들의 방역활동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2회 영주음사(瀛洲吟社) 전국한시지상백일장 개최

▣ 시고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33
제주우체국 사서함 26번
사단법인 영주음사 (우편번호:63166)
– FAX 접수 불가

▣ 원고 접수 기한 : 2020년 8월 30일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시고를 고선 전 원본 그대로 제책(製冊)할 예정이오니 서체는 반드시 해서(정서)로 기입 요망
– 작품해설 첨부, 미첨부시 고선에서 제외함.

▣詩題 : 山浦釣魚

▣押韻 : 飛, 肥, 磯, 稀, 歸 (微韻目)

▣詩型 : 七言律詩

▣고선기준 : 違題, 違簾, 字不正, 疊字, 疊意, 失對, 蜂腰, 鶴膝 등 일반관례에 따름

▣고선위원 : 斯界의 권위자 4人

▣입상자 발표 : 9월중, 개별통지

▣문의 : 대표전화 010-7161-9667, (064)752-0302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사단법인 영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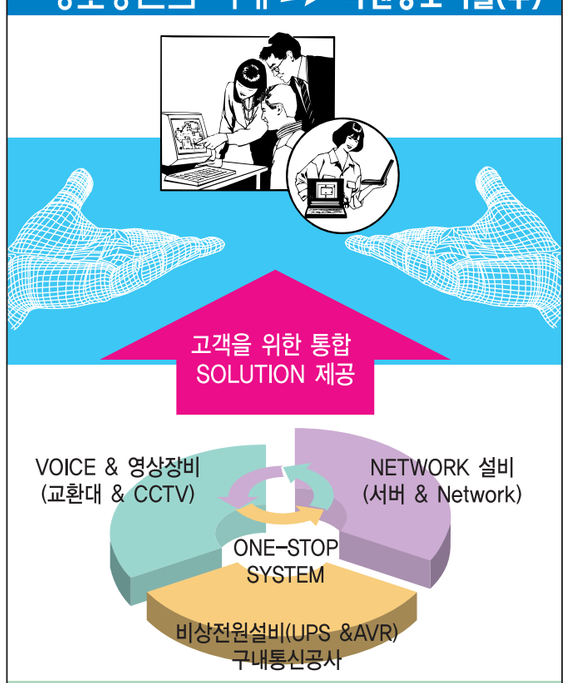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윈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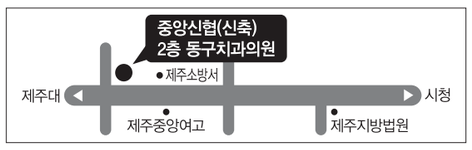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의 료 안 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